

+ 신정환 · KBS 라디오생방송팀

## 오디오와 취미

취미를 갖게 된 것도 어언 12년째 접어들고 있다. 오디오에 관해서 글을 써달라고 요청을 받고, 어떤 점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할지가 가장 고민이었다.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 것이 오디오이고, 어떻게 보면 할 얘기가 없는 것도 오디오이고, 주관대로만 얘기하다 가는 많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도 오디오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스스로 터득한 것이므로 작성한 글에 전혀 주관적 관점이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 가겠다. 오디오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처음 만나면 하는 얘기는 “뭐 쓰세요?”다. 아무래도 필자의 얘기부터 풀어 놓도록 해야겠다.



★ 본 이미지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강릉에서 근무시절 갖가지 룸 튜닝재와 기기로 꾸며서 사용한 오디오 룸

### 오디오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오디오에 처음 빠지게 된 계기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음악을 워낙에 좋아하던 난 친구와 함께 돈 60만원을 들고 용산 전자상가에 스피커를 사러 간다. 1층 국산 매장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50만원 이상 가는 스피커는 찾을 수 없었고 2층에 올라가면서 외제 오디오들을 만나게 되었다. 한 매장에서 가장 싼 중고 제품인 ROGERS 7T라는 스피커를 사들고 와서 친구와 함께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으며 음악을 들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 때부터 많은 오디오 기기들이 집을 들락날락하게 되었다. 스피커는 ROGER 7T를 시작으로 CELESTION SL700, DUNLAVY 1SC, VOCE DIVINA의 SOPARANO, 그 이후 VERITY AUDIO의 FIDELIO를 거쳐 현재 SILVERLINE의 SONATA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다.

앰프는 COPLAND의 CTA201에서 GRYPHON의 TABU, 그 이후 분리형을 소유하게 되면서 프리앰프는 GOLDMUND의 MIMESIS 2, AUDIO RESEARCH의 LS25와 LS25MK II를 거쳐 현재 BOULDER의 1010 프리를 사용하고 있다.

파워는 KRELL의 KSA100S, AUDIO RESEARCH의 VT100MK II를 거쳐 현재 CHORD의 SPM1200C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CDP는 CALIFORNIA AUDIO ICON에서 WADIA 20 트랜스포트에 MAB PLATINUM을 거쳐 CHORD의 BLUE 현재는 DCS의 P8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턴테이블은 현재 VPI의 SCOUT, 카트리지의 OROTOFON MC20, 포노앰프는 ALLNIC의 H-1500 등이 필자의 시스템 구성이다. 그 외에 케이블도 김버, NBS, NIRVANA 등을 사용하고 있다.

열거해 놓고 보니 "나도 참 여러 번 바꿨구나, 다시는 바꾸지 않으리라 몇 번을 다짐했건만"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의 기기들을 배제하고 현재의 오디오 기기들의 가격만 따져도 5000만원은 될 것 같다. 필자가 봐도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만하다.

필자에게 충격을 많이 주었던 몇 가지 기기를 언급해 보자면, 일단 VOCE DIVINA의 SOPARANO 스피커이다. 발매당시 가장 비쌌던 북 셀프형 스피커로 필자에게 3차원 공간감과 입체감을 가르쳐준 스피커이다. 한마디로 요즘의 하이엔드가 추구하는 최초의 북 셀프가 아니었나 싶다. 프리앰프 중에서는 AUDIO RESEARCH의 LS25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필자가 사용한 최초의 진공관 프리 앰프였는데 깊은 스테이지와 공간감에 매우 탄복했다.

파워에서는 CHORD 1200C 이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기기다. 발매 당시 ABBEY ROAD 스튜디오에서 B&W 스피커와 함께 모니터 스피커로 사용되는 파워앰프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기기이기도 하다. 그 빠른 반응과 스피커 장악력, 버릇없는 성격 등이 마음에 든다.

LP 쪽은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다. 단골 샵에서 턴테이블의 충격적인 소리를 듣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소리도 소리지만 가지고 노는 재미는 최고다. 손수 침압도 맞추고 승압 트랜스도 연결하고, 진공관 포노 앰프 등을 가지고 놀다보면 기계적인 냄새만 풍기는 CD와 비견되어 오디오 기기 중 가지고 노는 것으로는 최고의 장난감이 아닐까 싶다.

### 진공관 앰프 자작을 시작하다

2000년경, 진공관 앰프 자작을 취미로 하는 선배가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실력이 매우 뛰어났던 선배였다. 그 선배가 자작한 진공관 앰프를 보고 만들어 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껴서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시작 할 때는 그냥 두어대 만들어보고 하던 대로 하이엔드 오디오에만 전념할 생각이었는데 기성품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바로 만드는 그 자체에 재미를 붙인 것이다.

처음에 만든 앰프가 프리 앰프였는데 일명 유리디체라는 아주 간단한 트랜스 출력을 하는 프리 앰프였다. 필자의 하이엔드 프리와 비교하면 영 형편없는 소리였지만 일단 소리가 잘 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힘들게 만들어서 소리가 잘 나올 때는 그 쾌감이 대단했다. 내친김에 파워 앰프로 자작을 했다.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했다. 그런데 힘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가며 힘을 줄이는데 겨우 성공해서 서브용으로 사용했었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자작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공부를 시작했다. 인터넷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진공관이라는 것이 옛날 소자이기 때문에 자료나 책을 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는데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도움이 되었다. 실전과 공부를 겸하면서 여러 진공관 앰프를 자작하게 되었다.

파워 앰프는 6550 Push-Pull만 10대, 6L34PP, 300B PP, 845PP, 6C33 등과 유리디체, 차동, 파라피드 등의 프리해서 총 50여대를 자작한 것 같다. 자작은 기성품 오디오와는 또 다른 재미를 준다. 일단 처음 입문하면 만드는 재미가 있다. 안 그런 분도 많겠지만 처음에는 앰프를 계획하고, 부품을 모으고, 만드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다. 전공도 전자공학이었던 터라 진공관 회로에 대한 공부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여 회로도조차 직접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앰프를 만들 때는 어느 앰프를 만들 것인가 결정하고 회로를 설계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부품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앰프 사시 설계를 CAD로 그리게 된다. 이 과정이 가장 재미있을 시기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제작에 들어간다. 요즘엔 워낙에 많이 만들다 보니 이 과정이 지겹게 느껴지지만 어떤 소리가 나올지 궁금해 하면서 완성 후 소리를 들을 때는 아직도 가슴이 두근댄다. 자작의



전통 있는 AUDIO RESEARCH의 LS25MKII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현재 사용하는 VP의 턴테이블과 OROTOFON 카트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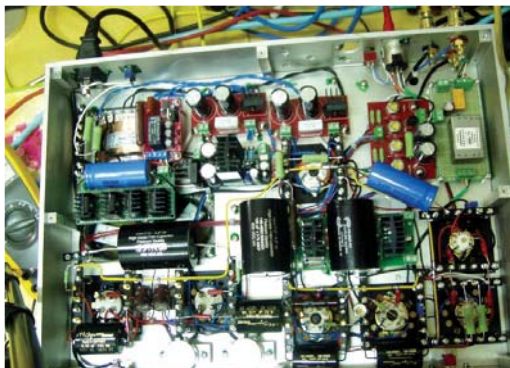


현재도 사용하는 SPM1200C 파워 앰프





필자가 만든 300B Push Pull 파워 앰프



최고 강점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튜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진공관과 부품 그리고 회로를 선택한 후 제작하고, 완성 후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품과 회로 수정 등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게 튜닝 할 수 있어서 가지고 놀기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다.

자작에 폭 빠져있다 보니 자작인들 사이에서 고수 취급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문제작을 의뢰 받기도 한다. 진공관 자작에 입문하면서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은 주문제작 및 공동제작 등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일명 업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진공관 앰프를 수리 하거나 오버 홀, 주문 제작, 공동 제작, 많이 사용 하는 회로를 PCB로 만들어 키트 형태로 팔고,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오디오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람, 트랜스만을 전문적으로 감는 사람 등이 진공관 앰프 자작이라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여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용산의 원효 전자상가 2층에 가면 이런 공방들이 많이 있다. 구하기 힘들다고 부르는 것이 값이 높고 부품 값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부품들을 가져와 앰프 제작을 의뢰하여 인건비만 몇 백만원밖에 이르는 사람부터 인건비 20~30만원만 남기고 주문 제작을 하는 사람까지 정말 다양한 업자들의 사무실이 있다. 부품 값들도 비싼 부품들은 정말 놀란다.

좋은 부품들의 거래가 어느 정도인지 한 번 살펴보고 가자. 부품들도 현대의 기술로 생산된 최신 제품과 과거의 오래된 빈티지 제품들이 골고루 인기가 있어 시대를 타지 않고 거래가 된다. 그런데 저항 하나에 몇 천원, 콘덴서 하나에 수십만원, 배선에 마터에 몇 만원 등은 기본이다. 웨스턴 일렉트릭의 오래된 구관 300B 같은 것은 1초에 몇 백만원에 거래되며, 웨스턴의 출력 트랜스는 기백만원을 넘는 것도 많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많이 활동하고 자신의 기술을 앞세우며, 자신이 만든 제품이 최고의 제품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업자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업자라고 공인이 되면 온라인에서 그런 말들을 함부로 못하지만, 앞으로 업자로 나아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앰프가 세계 일급의 음질을 자랑하며, 일단 들어보면 너무 훌륭한 소리가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일명 업자라는 사람 중에는 필자보다도 기술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온라인 부분이 자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난다.

어쨌든지 간에 자작은 분명히 성취감도 있고, 재미있는 부분도 있다. 또 배선재를 바꾸고, 부품을 바꿔가며, 에이징도 시켜가며, 회로를 수정해가며, 자신의 취향대로 튜닝해가는 재미는 기성품만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는 사실 기성품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